

## 2020년 1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0. 1. 31.(금) 오후 4시~5시30분

### ■ 주요 회의 내용

#### ▲ 정윤식 위원장

- 올해 상반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임, 총선이 있고, 공천문제,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국제적으로 미국 중국과의 관계, 북한 문제 등 연합뉴스 TV에도 중요한 시기임. 정치계 및 언론계도 서너달이 지나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냐에 따라 파워시프트랄까 이미지시프트 등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매뉴얼을 만들어 이러한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 안됨. 미리 예상하여 준비하길 바람, 다른 지상파와 달리 24시간 뉴스를 보낼수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임, 전문가의 섭외도 중요함, 숨은 스타 발굴해서 장기적으로 해설이 필요하기 때문임, 기자들의 태도는 현장성이 필요해서 진천 같은데는 빨리 가야함. 중국 우한 등에도 조선일보 기자가 직접 들어갔었음, 시청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함,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도 있고 정체 될수도 있음, 최근 TV조선의 시청률 상승은 아날로그 감성이 성공적인 요소인 것 같음. 앞으로 서너달 사이에 채널 디자인도 필요한 시점임. 연합뉴스TV의 장점은 뉴스보도에 시간이 확보되어있다. 젊은 사람의 활력이 있음, 따라서 표준화된 것보다 튀어나오는 사람도 필요함.

- 23일 목요일 16시 15분 뉴스 1번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을 대상으로 국회 로텐드홀에서 인터뷰 국회 로텐드홀에서 연합뉴스TV 기자와 단독 인터뷰는 현장감이라는 측면에서 인상적임. 향후에도 정치인에 대한 인터뷰는 로텐드 홀이나 의원 사무실에서 직접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해 보임, 인터뷰의 제일 큰 어젠다는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그 수단, 목적, 시기가 모호하다는 의견이었음. 소수 의견을 인터뷰한 것은 바람직 해 보이나 동시에 찬성 여론을 대표하는 견해를 가진 의원도 인터뷰했으면 바람직 해 보임, 북한 개별 관광, 비례대표 기탁금 문제 등을 포함하여 인터뷰 전체가 전문성, 참신성 등 측면에서 수준이 높았음. 다만 김종대 의원만 부각되고 인터뷰한 기자의 이름, 소속 등은 부각되지 않았음, <정치오감>, <이슈 풀풀> 등 작은 제목들이 많은 것이 흠결임. 즉 단위 뉴스 항목마다 특별한 의미없이 소 제목이 붙음, 설 연휴 날씨를 미리 알린 것도 바람직 하였음

- 24일 금요일 뉴스 09 프로그램의 시간 엄수 문제, 오전 09시 보다 조금 일찍 프로그램이 시작,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으나 채널 브랜드 이미지, 신뢰도, 정확성, 엄격성이 떨어지는 느낌, 캠페인 및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제작 제언 <연합뉴스 TV 연중 캠페인>이나 <프로그램 홍보> 물을 사전 제작하여 틈새 시간에 방송하는 것도 바람직 해 보임. 연합뉴스 TV는 자체 프로그램 소개 및 홍보가 취약한 것으로 보임, '고속터미널 예매'등 설 연휴 관련 뉴스 이후 '러시아 등 외신 주제를 다루다가 다시 여/야당 지도부 귀성객 인사 뉴스가 나옴. 설 연휴 뉴스 등 동질성 토픽은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임, 강은나래 기자의 <법률상식>은 이른바 “실용적인” “시청자 맞춤형” 명절, 휴가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타입으로 추천하고자 함, 교통보험, 벌칙금 / 층간 소음 분쟁/ 택배사고/김영란법 (5만원 이상 안됨, 농수산물 10만원 이하) 등 구체적이고 필요한 생활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함, 대체로 명절 프로그램을 보면 ‘고향으로 달려가는’기쁨을 묘사하거나 ‘교통체증’등 ‘상투적인 내용’들이 많다는 측면에서 법률상식은 시의성있는 시청자 맞춤형 서비스의 전형이었음, <택배 24시간 뛰는 사람들> <톨게이트 직원> <휴게소 직원> 등에 대한 접근은 감성적 측면에서나 공익채널로써 소수자(minority) 배려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였음, 향후 명절이나 연휴 프로그램은 법률상식과 같이 시청자에게 시의적절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거나, <택배 24시간 뛰는 사람들>과 같이 연휴에도 ‘고생하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 프로그램, 설 연휴에 고향과 가족을 찾는 즐거움 못지 않게 가족간의 갈등 (고생하는 며느리들의 불만 등), 경제적 부담, 샐러리맨 들의 육체적 부담 등 실질적인 문제들도 같이 다루었으면 함

- 27일 오전 8:26분 다큐 <기록에 도전하는 사람들> 프로그램의 의의는 원자력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 이었으며 전문성, 시의성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음, 또한 시청자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주제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시청자가 쉽게 접촉할 수 없는 원자력발전소의 정비문제를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신기성, 차별성 효과’(novelty effect)가 있음, 직업인으로서 종사자의 사명감과 성실성, 책임감도 느껴진 공익 프로그램, 개선점으로는 기자, PD 출연진 (질문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발전소 직원들만 출연하여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이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프로그램이 방식이 다소 어색함, 내용이 전문적 : 좀 더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풀어갔어야 함

- 29일 오후 5시 뉴스워치 공항 3층 약국에 마스크 있음(박상률 기자) 등 구체적인 공항 정보는 매우 유익함. “공항버스에 손 소독제 없고 방역안돼”라는 정보도 유익했음, 향후 신종 코로나 취재 보도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감형 정보가 중요할 것임, 북한, 홍콩,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신종 코로나 상황을 알려주는 것은 좋으나 과도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것임. 공포의 과도한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도 주의를 요하며 우리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국회 로텐드 홀에서 구하림 기자의 보도는 현안 정리가 잘되었으며 보도자의 이름, 화면 노출, 보도자/사건 화면의 동시 노출 등이 바람직해 보였음. 향후 이 모델이 보도자의 인물이나 화면 노출 등의 전형이 되었으면 함

#### ▲ 조영숙 위원

- 2019년 연합뉴스TV는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성희롱, 여성인권침해 보도를 빈번하게 전해 주었음. 이에 본 위원은 보도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성 평등한 용어, 관점, 이미지를 포함한 보도 내용과 방식에 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음. 예를 들어, 2월에는 안희정 관련 사건보도 시 가해자 중심 보도의 문제점, 3월

에는 김학의, 승리, 정준영 등 관련 사건보도 시 동영상 및 용어사용의 문제점, 5월에는 결혼사기 관련 보도 시 피해자인 여성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는 것으로 간주되는 앵커의 멘트처리 문제점, 10월에는 성 대결을 강조하는 보도방식의 문제점 등이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점들이었음. 이 과정에서 연합뉴스TV는 앞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셨음.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2020년이 되면서 연합뉴스TV 보도를 TV와 함께 스마트폰 앱으로 시청하고 있음. 이동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성이 좋습니다. 현대 첫 화면에 뜨는 뉴스피드 중 한 가지 기사가 문제적이어서 지적하고자 함. 다 아시다시피 뉴스피드는 뉴스의 확산기능이 담겨있음. 따라서 성 평등 용어, 관점, 이미지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 현대 1월28일자로 뉴스피드에 담겨진 <뉴스 뷰> 보도인 "고개 숙인 원종건, 당에 누끼쳐... 미투 사실 아냐" 기사는 성평등 용어, 관점, 이미지에 대한 고려가 부재한 보도로 판단됨. 가해자의 관점을 일방적으로 전파하고 있기 때문임. 성평등 관점을 보도에 적용하는 것은 끊임없는 주의와 노력이 필요함.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2020년에는 시청자의 피로감(fatigue)을 낳는 뉴스과잉 또는 과잉뉴스에 대한 기준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첫 번째는, 2019년에 이어 여전히 대부분이 뉴스가 아무런 새로움(News)이 없는 국회와 정치권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음. 전혀 새롭지 않은 정치뉴스가 끊임없이 반복 보도되다보니 정치뉴스가 정치에 대한 혐오를 낳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피로감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뉴스의 총량에서 정치가 차지하는 최대치를 제한하는 기준마련이 필요.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뉴스, 전염병에 관한 보도는 국민건강 차원에서 매우 중요, 하지만 하루 종일 동일한 보도를 반복하면서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시청자들은 끊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공받기 보다는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싶어 함. 하루 종일 반복되는 뉴스가 필요하다가기 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받고 싶어 함. 즉, 정부, 의료기관, 시민이 각각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함. 이러한 요구는 과거에도 있었음. 사스(SARS), 메르스(MERS), 조류독감(AI) 등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 보도는 처음이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전염병 발생에 대한 보도 원칙과 기준이 명확히 보이지 않음, 그러다 보니 자칫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는 가짜뉴스가 신뢰받는 언론을 대신해서 국민들에게 심층정보인양 확산되고 있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체계적인 정보가 담긴 뉴스피드를 강화해주시길 요청 드림

#### ▲ 박성용 위원

-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뉴스 제공 필요, 1월초부터 지금까지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뉴스가 쏟아지고 있으나, 시청자들이 궁금한 내용(정보)에 대한 뉴스

제공은 제 때,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1월 6일(월) 출발 640 프로그램에서 7시30분경 '중국, 원인불명 폐렴 발생, 사스 아님'이라는 제목의 단신이 제공됨, 당시(1월초순)는 모든 학교가 방학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거나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았음, 당시 중국에서 원인불명 폐렴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 뉴스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서, 중국으로 여행 시 필요사항, 여행자가 조심하여야 하는 내용 등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취재하여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염된다는 사실과 여러 국가에서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한 뉴스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연일 제공하면서, 전염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이 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않음, 더 나아가서 1월31일(금) 아침 7시반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우한교민이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인천에 격리되는 것을 우려, 갈등하는 내용을 인천통장과 인터뷰를 하였음, 시기적절하게 현실성 있게 우한교민들 격리 및 전염문제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내용을 언론이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음, 그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잘 해결되어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여 입소하게 되었음. 타협점을 찾는 갈등을 해결해 줄수 있는 기능까지 연합뉴스tv가 가야 되지 않겠나. 사실전달만 치우쳐 있음, 확대해서 그 시간에 라이브로 직접 발빠르게 현장에 가서 현지통장을 만나서 취재 및 현장연결을 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임.

- 미국의 이란 군부 지도자 제거작전 수행을 계기로 발생한 미국-이란 간 분쟁 관련 뉴스가 1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계속 제공되었음, 당시 미국-북한 간 관계 부진 등으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음, 그러나 미국-이란간 분쟁이 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정보제공)이 없이, 당시 미국-이란 간 분쟁관련 뉴스를 사건 중심으로만 제공하여, 동 뉴스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반면 kbs에서는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전문가 2명이 패널로 나와서 미국-이란간 당시의 군사적 충돌현상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의 원인을 여러 측면(종교적, 역사적)에서 설명함

- 1월11일(토) 13:40분경 '전국 주요 신문 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각 신문사의 주요 기사제목을 별도로 작성하여 화면에 내 보이면서, 기사와 관련한 화면 등의 제공 없이 단순히 진행자가 그 기사내용을 설명함, 다른 방송사의 비슷한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단조롭다는 느낌이 들었음

- 1월12일(일) 19:07분경 '성남시 하수처리장 건설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체 20년 방치, 문화공간으로 변경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성남시청 과장의 인터뷰에서 15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보도가 나옴, 세금 낭비 관련사건은 자주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더욱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 국민혈세 낭비 관련 사건을 계속 발굴하고, 이의 원인도도 심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1월11일(토) 19:40분경 미니다큐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정선 약

과 만드는 청년(대학원생, 소설가, 약과 제조)이야기가 보도되었는데 내용이 좋았음

▲ 김경만 위원

- 1, 29자 16:36 뉴스보도 "손님 없어요"... 반등하던 소비심리 다시 '휘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확산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물론 국민 안전입니다만 경제도 큰 걱정거리임. 경제는 심리라는데 겨우 살아나던 소비심리는 다시 위축될 조짐이고 사태가 길어지면 내수 전반이 타격을 입으면서 경기반등도 어려워 질 수 있음. 신종 코로나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으면 음식점과 대형마트, 백화점은 물론 관광업, 극장까지 내수는 전방위 타격이 불가피함 등등, 신종 코로나, 한국 경제에 리스 요인 되나 (김대호의 경제읽기) (2020. 1. 28자 18시 뉴스보도) 확산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한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주가하락, 환율급등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 항공업계의 중국노선 취소, 각 지자체의 행사취소 또는 연기문제, 정부의 관광,서비스업 등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겠다는 경제부총리의 입장, 이번 사태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정도 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기사 보도는 매우 잘한일이라고 생각,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보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의 세계1위 수출입 대상국가인만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내수경기와 관광업 등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분석보도와 현장보도를 병행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짐, 중소기업중앙회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 대다수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향후 중국공장 가동중단, 중국내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선적지연 및 수출타격이 우려된다는 업계의 반응이 많았음. 이에따라 중국 관광객 감소, 국내 소비 축소가 장기화될 경우 내수부진으로 이미 어려움에 처해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 부정적 영향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관련 건의사항으로는 정부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안전수칙 마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소상공인 피해방지를 위한 과도한 경계분위기 조성 자제 등에 대한 요청이 있었음, 향후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가 현장보도시 이러한 내용등을 참조하여 보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봄

- 한국 무역적자국 1위 일본...적자액은 16년만에 최저(2019. 1. 27자 뉴스보도) 일본의 수출규제여파로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이 한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일본과의 무역적자가 191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적자액은 2003년 190억 3700만 달러이후 16년만에 최저로 줄었다는 보도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이후 우리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총력대응을 통해 소부장 대책을 마련,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일본의 언론에서조차 아베의 한 수출규제조치는 오히려 일본기업의 한국수출을 어렵게 국만들고 한국의 소부장 산업의 육성계기를 만들어 준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적 기사가 나오기도 했음. 한국의 소부장 대책은 과거의 금모으기 운동에 비견될 정도로 산업부

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짜임새있게 추진한 결과 대일 무역적자가 16년만에 최저로 줄어든 원인중의 하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음. 따라서 금번 보도시 대일무역적자의 배경을 조금 더 분석보도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한국의 소부장 강소기업에 대한 인터뷰를 병행 취재했다더라면 대일무역적자가 줄어든 것에 대해 시청자가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 ▲ 박성복 위원

- 해가 바뀌어서 바라보는 연합뉴스TV는 지난해와는 많이 달라진듯한 느낌을 받게 되어 흐뭇함. 지난해 한 번 언급했던 사항이기도 했었지만 이번달에서도 약간 이질적인 느낌을 받게 된 것은 문자 그래픽의 통일성임.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속보가 자주 나오게 되는데 최근 질병관련 속보뉴스의 자막은 좌우 여백 없는 오렌지색 바탕에 흰색글씨자막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주로 사용하는 자막그래픽 형태는 작년이후로 좌우 여백을 준 흰색 바탕에 짙은 남색 글씨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번 질병관련 속보의 위급성 또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색깔과 좌우여백 없는 형태의 그래픽 자막을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함. 차라리 그래픽은 형태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속보의 경우 바탕색을 오렌지색에 하얀 글씨를 쓰는 것이 통일성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방송사의 다양한 시각이 나타날건데, 모든 국민이 관심을 끄는 뉴스는 쉽지 않은데, 나한테 관련된 질병과 관련된 뉴스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수도 있고 위기가 될수도 있음, 연합뉴스TV도 스텝들끼리 상당히 잘 준비하여 스탠스를 정하는 것이 중요함

#### ▲ 허찬행 위원

'한반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을 일요일 저녁 9시 10분부터 50분까지 40분간 제작 및 편성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반도브리핑], [한반도 키워드], [남녀북남] 등 3개 코너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1월 20일자 해당 프로그램을 보면, [한반도브리핑]에서는 약 20분 간 "남북 협력, 엇갈린 한미...갈등 증폭 우려?"라는 주제로 전문가 패널 1명과 함께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초, 금강산 개별 관광의 독자적 추진 입장,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발언 배경과 북·미의 입장 및 전망,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대해 해설 해줌. [한반도 키워드]에서는 "北 김계관"이라는 주제로 약 5분간 앵커가 북한의 대미, 대남 외교 정책의 전망을 해설 해줌. [남녀북남] 코너에서는 남한의 여대생과 탈북민 남대생과 함께 북한의 명절에 대해 간략한 소개와 함께, 남북한 명절의 공통점과 문화적 차이점 등을 다룸, 북한의 명절은 민속 명절로 추석, 단오, 설이 있고, 국가적 명절로는 태양절, 광명성절, 창당기념일이 있음, 설에는 친척집을 방문하는 것은 남한과 동일하지만 전력난으로 기차 운행이 더디고 자주, 길게 지연되기 때문에 1주일 전 출발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귀성 문화에 대해 기차가 저속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달리기 장사꾼'들이 기차를 따라 물건을 판매하

는 문화가 있음, 세배를 하거나 차례 상 준비, 벌초 등은 남북한 간 공통적이지만 설음식에서 남한은 주로 떡국을 먹는 반면 북한은 만두를 먹는다는 차이점 등에 대해 소개, 남한은 명절 증후군이 있는 반면, 북한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문화적 차이와 함께, 남한은 단기 아르바이트가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몰리는 문화적 차이 등을 재미있게 소개함, 설 연휴를 앞두고 남북한의 명절에 대한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 다루고 있어, 시의적절한 주제 이었다고 생각하며 진행 방식도 딱딱하지 않고, 너무 오락적이지 않아 긍정적으로 평가함, [한반도는 지금]의 [남녀북남]코너의 주제는 1월 13일에는 “남북의 언어”, 1월 6일에는 “남북의 시상식”에 대한 것이었음, 현재 공중파 방송에서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은 매우 정적이고 딱딱하여 젊은 연령층의 시청자들을 흡입할 수 없고, 종합편성채널의 북한관련 탈북민 증언 형식의 오락 프로그램은 사실과 다르게 과장 및 왜곡하여 북한(사람들)은 이상하다는 편견 조장이나 희화화가 지나침. 이와 비교해 지난해 10월부터 제작편성하고 있는 [한반도는 지금] 프로그램은 젊은 패널들이 나와 너무 가볍지도 않고, 딱딱하지 않게 남북한의 문화에 대해 다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제안을 하나 하자면 2월에는 북한의 졸업과 입학의 중심으로 남북한의 졸업, 입학 문화와 같은 주제, 3월에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남북한의 처우 등 시의적절한 주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면 좋겠음, [남녀북남]의 경우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등 멀티플랫폼 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구사했으면 좋겠음. 참고로 연합뉴스 유튜브채널 크리에이터인 강나라씨가 진행하는 [연통TV]의 경우 ‘북한에서 프로포즈를 할 때 가장 인기 있는 남한 가수의 노래’와 같은 것들을 소개함. 최근 인기 유튜버가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을 방송채널에서 방영하는 것처럼, 연합뉴스TV에서도 [한반도는 지금] 프로그램에서 연계하여 좀 더 젊은 층들을 흡입할 수 있는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최근 개봉한 영화 ‘백두산’에 재난영화보도에 YTN이 노출되는데 연합뉴스TV도 적극적으로 채널을 노출하는 홍보를 하였으면 좋겠음

#### ▲ 나지수 위원

- 연말 송년음악회를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개최 하였을텐데, 방송으로 1시간정도 제작 및 편집하여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면 어떨지, 그리고 시청자들도 참석하여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음.
- 1월11일 ‘유턴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서 사망 택시기사 금고’ 몇분 있다가 ‘은혜학교 폐교 이사장 징역형 집행유예’ 결국 둘다 내용은 집행유예인데, 집행유예로 하는게 더 맞지않나, 기계적으로 의미를 생각을 하지 않고 제목을 뽑은 것 같음, 사건 사고의 단신만을 사실관계만 보도하는데 교통사고 등 일상적인 사건 사고보다 의미있는 기획취재도 보도했으면 좋겠음, 개개인에게는 소송 등 시의성 있는 판결이 있음, 재건축 재개발지역에서는 임차인이 나가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어 임대기간이 끝나도 임대보증금반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기획보도를 하고 관심있는 소재를 다루면 좋겠음

- 1월30일 출근길인터뷰에서 교수인지 정부관계자인지 어느병원 무슨과 교수인지. 내과인지 예방의학과인지 궁금하였음 자막표시가 없어 시청자가 채널을 돌리든지 컷을 때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수 있게 계속 인터뷰 신상을 표시해 주었으면 좋겠음
- 통계 그래픽 컬러감이 세련되지 못한 듯.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시청자층의 연령층을 고려한 것이라 보지만, 탁하고 통일감 없는 현란한 색상사용은 젊은층을 끌어들이기는 어려울 듯 보임

#### ▲ 서창호 위원

- 1/14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보도, 생중계로 수어 통역과 함께 자막도 내보냄. 지상파 방송(kbs)은 수어 통역만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좋았음. 앞으로도 시각.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및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주시길 바라며 수어통역을 하시는 분의 명확한 경계가 모호하고, 수어 통역하는 분의 멀리서 보면 손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음.. 시청하는 입장에서 장애인분에게 실제로 모니터링하여 한번 점검해서 실제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제작하였으면 좋겠음.
- 1/14 납북귀환어부 재심 항소심 무죄 보도,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하였다는 사실 전달에만 그침. 검찰의 항소이유, 판결의 의미에 대하여는 전혀 살피지 않음. 심층보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
- 1/25 박근혜 구치소서 명절 마지막 가능성 보도, 사면 대상 요건 등을 상세히 언급하며 "사면은 확정판결 이후에야 가능한데 아직 진행 중인 재판이 있다는 것이 첫번째 걸림돌"이라는 멘트를 함. 설 명절과는 무관한 내용이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한지 의문임. 마치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비취질 우려가 있는 멘트로 특정 정당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 제작 보도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임.
- 1/29 포털에 김치먹으면 예방 가능' 신종코로나 진실과 오해' 신종코로나와 관련한 각종 루머의 사실 여부를 확인. 정리해주어 시청자들이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주어서 좋았음.

#### ▲ 장유리 위원

- 주위의 지인에게 개선사항에 대한 연합뉴스TV평을 들어봤음, 매시간 똑같은 뉴스가 나와 콘텐츠 재활용의 느낌이 강함. 시간대를 조금씩 바꾸어 다양한 뉴스를 전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됨
- 보도채널이지만 많은 시청률을 이끌려면 두가지가 필요하겠 같음, 하나가 강아지와 관련된 것과 또 하나는 입양관련 된 건데 가족찾기 프로그램 제안을 할까 함, 잃어버린 자녀 해외입양건 DNA를 통해서 찾는것임, 이러한 것을 따듯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뉴스채널까지 많이 흡수하지 않을까 생각함. 강아지와 고양이 공장 없애기, 잃어버린 반려동물 찾기, 선진국도 취재하여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가족들이 함께 보면 뉴스로 많이 시청층이 다양하지 않을까 생각함.

-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특보 시작할 때 앵커 머리 바로뒤 앵커백에 10초넘게 한참 계속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미지 손상을 일으키며 보기가 좋지 않았음